

 전국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h2 style="text-align: center;">10월 18일(목)</h2>	
배 포 일	10월 18일	담당자	이정미센터장(계양구)
협 의 회 장	정정옥	문의전화	032) 715-8262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지역밀착형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통한 저출산 위기 탈출 고민!
토론회 개최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회장: 정정옥)에서 지역밀착형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통한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는 11월 1일(목) 13:30분에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지역 밀착형 육아정책방향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에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으며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역할에 대해 보다 확고하게 다지고, 지역밀착형 육아정책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정립하여 나아갈 방향 공유와 법적·제도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101개소가 있으며,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전국 각 처에서 육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토론회는 평소 저출산과 보육에 관심이 많은 김병욱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신동근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도자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함께하고 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서영숙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와 함께 보건복지부 관계자, 부모, 어린이집 원장, 학계 전문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를 위해서는 부모, 공무원, 센터 직원의 의견이 수렴되어 수요자 욕구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연구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관계자는 “어렵게 마련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밀착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정립과 저출산 극복 대안정책의 구체화 등의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